

130. 고난주간(1)

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

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(요 1:29)

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

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(슥 13:1)

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

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

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

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(시 16:9-11)

(다같이)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(계 5:12)